

해 저무는 시각, Y대학교 교문 앞.



교문을 나서는 영수의 머릿 속은 온통 리비도 뿐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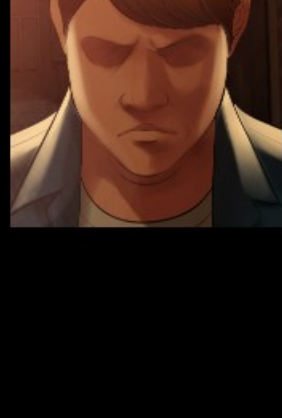
공시 수강료 명목으로 부모님께 받은 돈을
모조리 지민에게 탕진하고 있다.

지민은 서연을 능가하는 여제였다.
탄력적인 신체와 완력으로 영수를 완벽히 지배했다.



펠덤 클럽 경력이 짧은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
능숙하게 남성의 오르가즘을 컨트롤했다. 특히 영수의 애간장을
녹이는 정교한 풋잡은 웬만한 창녀의 펠라치오보다
더 극상의 쾌락을 제공했다.

경쾌한 발걸음으로 교문을 나서는 찰나,
어느 거구의 남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.



너가... 영수지?
서연이랑 같은 과.

....네...

그런...데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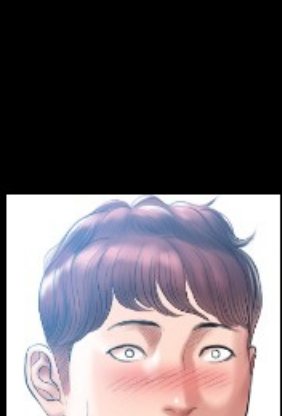
말이 끝나기 무섭게, 남자는 영수의 먹살을
거칠게 움켜쥐었다.

아앗! 왜, 왜 이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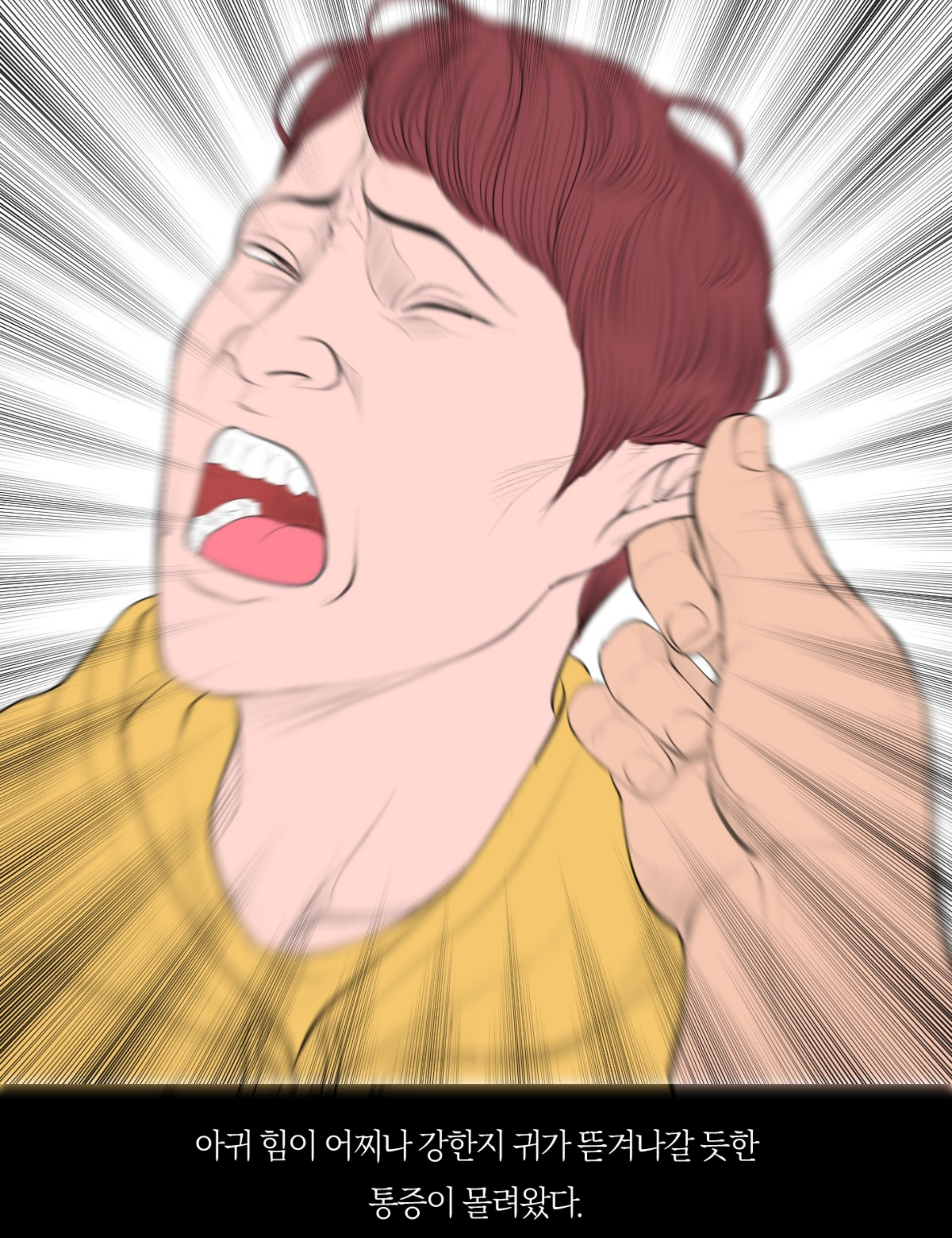


영상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생겼네.
너... 리비도라는 클럽 알지?

네?! 아, 아뇨...!
저, 저는 아무것도...



남자는 더 듣지 않고 영수의 귀를 힘껏 잡아당겼다.



아귀 힘이 어찌나 강한지 귀가 뜯겨나갈 듯한
통증이 몰려왔다.

아아아악!! 그,그만...! 크으윽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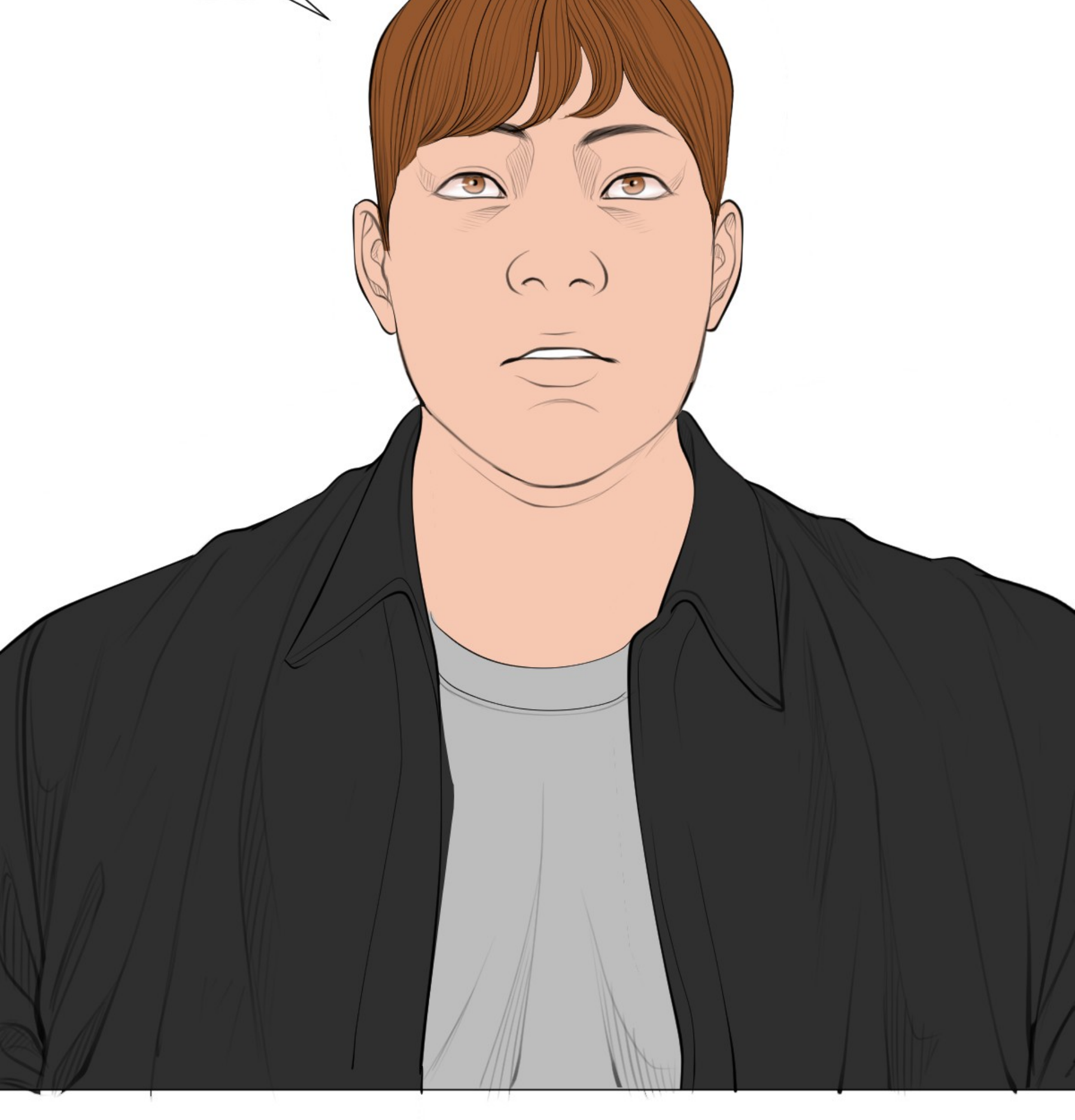


한번만 더 개소리하면 귀를 찢어버릴 거야.
다시 묻는다. 리비도, 어디 있어?

흡연세뇌 2



.....



여기가...

LIBIDO
PRIVATE CLUB

리비도...



어이.

?

여긴
회원 전용 공간이야.

얼정대지 말고
돌아가.

.....

뭘 멀뚱히 서 있어?
귀 먹었어?

